



## 1. 서론

한국사회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서 취업 및 조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 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청년의 역량 개발은 지식습득 위주의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고, 다양한 활동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청소년기 역량 개발을 돕고 균형 있는 성장을 돕기 위해 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 창의적 체험활동 등 체험위주의 학습이 전개되고 있고, 지역사회에서도 수련활동, 문화활동, 교류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활동이 제공되고 있다. 청소년활동은 청소년기에 직면하는 다양한 발달적 욕구 충족과 성공적인 성인의 삶에 필요한 역량 개발을 돕는 체험중심의 교육적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1]. 이에 청소년들에게 청소년활동을 제공하는 목적은 발달과업에서 이루어지는 내적 힘을 발휘하여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를 실천하는 능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필수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2].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교시절에는 의미 있는 청소년활동에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위축되거나 줄어들 위험이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연구(2015)를 살펴보면, 청소년활동의 참여율은 학년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1]. 즉 초, 중학교 시기 청소년활동에 비해 고등학교 시기에는 청소년활동의 참여율이 낮아지고 있다. 이 시기의 청소년활동 참여는 청소년기에 습득해야 할 역량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성인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생애핵심역량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3]. 따라서 고등학교 시기의 청소년활동이 구체적으로 대학생의 어떤 역량 강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영향력의 구체적 경로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관련 학과 대학생들은 미래에 청소년지도사로 활동할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이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리더십생활기술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청소년지도사는 국가 자격증 양성과정을 통해 배출되는 인력으로서 청소년활동(프로그램 및 사업)을 전담하여 청소년의 수련활동,

예술활동, 교류활동, 동아리활동, 자원봉사활동 등을 지도한다[4][5]. 이러한 청소년활동을 지도하는 청소년지도사는 개인이 갖고 있는 능력과 자질에 따라 청소년 지도의 성공 여부가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청소년지도사가 갖추어야 하는 역량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6][7]. 청소년 지도는 ‘청소년활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리더로서의 적절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 지도 과정은 청소년지도사들의 리더십의 발휘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8].

리더십이란 특정 실천 활동에 초점을 뒤야 하며, 이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9]. 또한 리더십은 개인의 삶에서 꼭 필요한 기술이며, 자신이 속한 사회와 집단을 개선하는데 구성원 모두가 갖추어야 할 생활기술이다[10].

특히 리더십 능력은 청소년의 자기 이해도와 진취적 성향을 높이며, 위험 행동 예방에 도움을 주어 다음 발달단계인 성인기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11]. 리더십생활기술은 리더십이 개인의 실제 사회생활 속에서 발현될 수 있도록 리더십에 생활기술이라는 개념을 적용시킨 것이다[12][13]. 리더십생활기술은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속에서 성공적인 적응에 꼭 필요한 핵심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14-16].

대학생의 리더십생활기술 습득은 개인 스스로를 이해하고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조직생활을 성공적으로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17]. 즉, 장차 사회 조직 내에서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하며 조직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18]. 특히 리더십생활기술은 청소년 활동을 이끌고 청소년 리더십 함양에 도움을 주어야 할 청소년지도사에게는 매우 중요한 능력일 것이다[19]. 또한 본 연구 대상인 전문대학생의 경우는 4년제 대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학습 기간으로 인해 경력 개발과 설계에 대한 막중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런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문대학생에게 리더십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20]. 따라서 전문대학교 입학 전 고교시기에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역량을 습득하는 것은 대학 시기의 리더십생활기

술 등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앞서 언급한 청소년활동은 리더십생활기술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국내 선행연구들은 자원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체험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활동이 리더십생활기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6][21-23].

한편,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4-28].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리더십생활기술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국내외 여러 선행연구는 자아존중감과 리더십생활기술의 긍정적 관계를 보고하였다[14][19][29-32].

또한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의 행복감과도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3]. 국내 여러 선행연구는 수련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등과 같은 청소년활동이 주관적 행복감 등을 향상시킨다고 보고하였다[34-40]. 행복감과 리더십생활기술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나 일부 연구에서 행복감과 리더십생활기술간에 정적 상관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41][42]. 이러한 연구를 통해 행복감과 리더십생활기술 간에 긍정적 영향력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청소년기 청소년활동 경험이 청소년기의 역량 개발에 효과적임을 나타내는 연구들이었다. 그러나 청소년기 청소년활동이 이후 성인기 역량 개발과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연구는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청소년활동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행복감, 리더십생활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는 있으나, 성인기인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행복감과 리더십생활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또한 청소년활동이 각각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을 매개로 리더십생활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한 연구도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고등학교 시기(17-19세)의 청소년활동 경험이 타 시기에 비해 낮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 시기의 청소년활동 경험이 성인기의 역량 개발에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기, 즉 고등학교 시절에 경험한 청소년활동이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을 증진시키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리더십생활

기술이라는 역량을 증진시키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청소년활동 경험은 특정한 청소년활동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청소년활동 경험이 많을수록 변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여성가족부(2014a)[43]에서 인증수련활동 영역으로 분류하는 모든 청소년활동에 참여한 경험의 정도가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교시절 청소년활동은 대학생 리더십생활기술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고교시절 청소년활동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대학생의 리더십생활기술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고교시절 청소년활동은 행복감을 매개로 대학생의 리더십생활기술에 영향을 미치는가?

## II. 이론적배경

### 1. 청소년활동과 리더십생활기술과의 관계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중간 과정으로써 다양한 인지, 사회, 정서, 심리적 발달과업을 성취해나가기 위해서 이 시기에 생활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14].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청소년 시기에 리더십생활기술의 습득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 기술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볼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청소년활동과 리더십생활기술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조사연구Ⅲ(2016)에서 청소년활동 만족도와 참여정도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리더십생활기술 수준이 높아진다고 하였다[42]. 최창욱 외(2005)는 청소년 동아리활동의 참여가 높을수록 리더십생활기술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22]. 최창욱 외(2012)는 다양한 청소년활동 경험이 많을수록, 청소년시설 경험이 많을수록 리더십생활기술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23]. 장세중(2013)은 청소년의 리더십생활기술은 단체 활동 경험이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21]. 즉 이러한 연구결과

들은 청소년활동이 리더십생활기술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정한 청소년 활동 만이 아니라 다양한 청소년활동 경험이 많을수록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강화된 역량이 대학생이 된 후에도 지속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하다.

## 2. 청소년활동과 자아존중감 및 리더십생활기술과의 관계

청소년활동은 리더십생활기술 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러 선행 연구를 통해 추측해볼 수 있다. Barret과 Greenaway(1995)는 청소년활동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자아개념, 자기효율성 등을 향상시킨다고 주장하였다[44]. 또한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자아개념, 자기조절능력 등을 향상시켜 사회화 과정을 효과적으로 형성해나가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하였다[44]. 미국캠핑협회(2004)에서는 캠핑활동이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효과가 무엇인가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자아존중감, 독립심, 리더십, 우정기술, 사회적 만족감, 또래관계 개선, 모험심과 탐험심, 환경에대한 인지능력 확대, 가치와 의사결정, 정신력 등에 유효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면적으로는 자아정체감을 비롯한 자아에 대한 이해와 존중감 및 자기효율성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이면서, 외면적으로는 사회성 발달 및 리더십, 타인과의 상호 유대 관계 개선 등 사회적 측면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45][46]. 이성은(2009)의 중단적 연구에서 청소년의 사회봉사활동의 참여가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데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6]. 이외에도 박성복 외(2008), 문성호 외(2009), 류시영 외(2012), 송진영 외(2016)는 청소년활동 참여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24][25][27][28].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자아존중감은 리더십생활기술과도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외국의 선행연구들에서 자존감과 리더십생활기술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14][32]. 또한 한국의 선행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이 리더십생활기술

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되었고[30], 또 다른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은 리더십생활기술의 하위요인 중 의사결정기술, 자기이해기술과 정적 상관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9]. 이러한 상관관계 뿐만 아니라 대학생 리더십 생활기술은 자아존중감 향상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19][31]. 따라서 앞서 검토한 대로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리더십생활기술을 높이는 중요한 기능을 하며, 자아존중감 역시 리더십생활기술의 향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볼 때 청소년활동과 리더십생활기술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예측해 볼 수 있다.

## 3. 청소년활동과 행복감 및 리더십생활기술과의 관계

선행연구에서 청소년활동은 행복감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Ryff(1997)는 학교 및 사회활동의 참여수준이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33]. 이미리(2003)는 청소년들의 행복감 증진을 위해서는 과중한 학업 위주의 생활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다[29]. 국내 여러 선행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수련활동, 자원봉사나 동아리활동 참여가 주관적 안녕감이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34][35][37-40]. 그 외에도 청소년 활동에 대한 참여 동기나 만족도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도 있었다[38][47].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하였을 때 청소년활동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청소년의 행복감과 리더십생활기술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 그러나 박민서(2012)는 행복감과 리더십생활기술간에 정적 상관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41]. 또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Ⅲ(2016)에서 청소년활동 참여정도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주관적 행복감, 리더십생활기술간에는 정적 상관관을 보여[42] 행복감과 리더십생활기술간에 관련이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의 행복감과 리더십생활기술을 증진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활동과 리더십생

활기술과의 관계에서 행복감의 긍정적 영향력을 예측해 볼 수 있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고교시절 청소년활동이 대학생의 리더십생활기술에 영향을 미치고,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이 청소년활동과 리더십생활기술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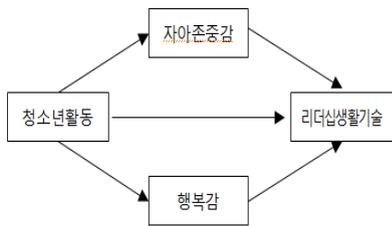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과거 청소년활동 경험이 그들의 현재 리더십 역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수도권 지역의 한 전문대학교의 청소년 관련 학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이들이 미래의 청소년지도사로서 활동할 가능성이 크며, 이들의 리더십생활기술은 일반 대학생들에 비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들의 청소년기 특히 고등학교(17-19세) 시기에 참여한 청소년활동 실태와 자아존중감, 행복감, 리더십생활기술 등을 조사하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Ⅱ[1]에서 사용한 조사도구를 대학생 질문지로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1차 조사는 2016년 10월에 청소년지도사 관련 교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재학생에게 설문지 180부를 배포하

여 이중 부실 응답 23부를 제외한 157부를 수집하였고, 2017년 4월에 추가적으로 동일 과목의 신규 수강자에게 2차 조사를 실시하여 80부를 배포하였고 부실 응답 3부를 제외한 77부를 수집하였다. 따라서 두 번의 설문 조사를 통해 수집한 총 234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성별분포는 남학생 61명(26.1%), 여학생 173명(73.9%)으로 나타났고, 학년별로는 1학년 155명(66.2%), 2학년 42명(17.9%), 3학년 37명(15.8%)으로 나타났다.

#### 3. 측정도구

##### 3.1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경험

청소년활동의 영역별 참여 경험을 살펴보기 위해 여성가족부(2014a)[43]의 인증수련활동 영역별 분류를 토대로 영역 및 영역별 활동을 재구성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5) 연구도구[1]를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활동 영역을 건강·보건활동, 과학정보활동, 교류활동, 모험개척활동, 문화예술활동, 봉사활동,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환경보존활동, 자기(인성)계발활동, 청소년참여활동의 10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로 활동의 참여 여부를 질문하였다. 각 문항은 고등학교 시절(17~19세)에 ‘참여한 적 없음’, ‘참여한 적 있음’(1~2번, 3~4번, 5번이상)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활동을 ‘참여한 적 있음’을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 3.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65)의 척도를 사용했다. 척도는 총 10문항이며, 이 중 5문항은 역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역문항 변환 후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나타낸다[1][48]. 척도의 Cronbach's Alpha는 .876로 분석되었다.

##### 3.3 행복감

행복감은 한국방정환재단과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

구소(2010)[49]가 어린이·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을 측정하기 위해 활용한 6개 문항에 1개의 단일 문항을 추가한 임희진, 송벽국(2014)의 연구[48]를 재인용한 최창욱 외(2015)[1]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5점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척도의 Cronbach's Alpha는 .850로 나타났다.

### 3.4 리더십생활기술

리더십생활기술을 측정하기 위해 Seevers, Dormordy와 Clason(1995)이 사용한 척도를 최창욱(2001)이 우리나라 실정을 맞게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13]. 최창욱의 척도는 커뮤니케이션기술(communication skills) 2문항, 의사결정기술(decision-making skills) 5문항, 대인관계기술(skills in getting along with others) 7문항, 학습능력기술(learning skills) 4문항, 조직관리기술(management skills) 3문항, 자기이해기술(skills in understanding yourself) 6문항 그리고 그룹활동기술(skills in working with groups) 3문항으로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리더십생활기술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리더십생활기술척도의 Cronbach's Alpha는 .905로 나타났다.

## 4.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처리는 통계프로그램 SPSS 18.0을 사용하여 자료의 전반적인 기술통계치, 측정도구의 신뢰도(Cronbach's Alpha) 값과 각 측정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을 알아보았다. 고교시절 청소년활동 경험 유무와 리더십생활기술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독립변인들의 리더십생활기술에 대한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50]. Baron과 Kenny(1986) 매개효과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변인(청소년활동 경험)과 매개변인(자존감, 행복감)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

가 있어야 한다. 둘째, 독립변인(청소년활동 경험)과 종속변인(리더십생활기술)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셋째, 매개변인(자아존중감, 행복감)이 종속변인(리더십생활기술)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넷째,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은 매개변인을 통제 후 줄어들어야 한다(독립변인: 2단계  $\beta$  값 > 3단계  $\beta$  값). 매개효과가 나타난 경우에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고교시절 청소년활동 경험과 대학생 리더십생활기술과의 관계

#### 1.1 고교시절 청소년활동 실태

고교시절 청소년활동을 10가지로 질문하여 참여유무를 파악하였는데 결과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건강·보건활동이 224명(95.7%)으로 가장 참여율이 높았고, 문화예술활동이 209명(89.3%), 진로탐색활동 192명(82.1%), 봉사활동 185명(79.1%) 순으로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교류활동과 참여활동은 각각 61명(26.1%)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낮은 참여율을 보였다.

표 1. 고교시절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n=234)

활동영역	구분	N	%
건강·보건활동	참여유	224	95.7
	참여무	10	4.3
과학정보활동	참여유	159	67.9
	참여무	75	32.1
교류활동	참여유	61	26.1
	참여무	173	73.9
모험개척활동	참여유	143	61.1
	참여무	91	38.9
문화예술활동	참여유	209	89.3
	참여무	25	10.7
봉사활동	참여유	185	79.1
	참여무	49	17.9
진로탐색 활동	참여유	192	82.1
	참여무	42	17.9
환경보존활동	참여유	143	61.1
	참여무	91	38.9
자기계발활동	참여유	156	66.7
	참여무	78	33.3
참여활동	참여유	61	26.1
	참여무	173	73.9

1.2 청소년활동 유무에 따른 리더십생활기술의 차이  
고교시절 청소년활동 참여유무에 따른 리더십생활기술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2]과 같다.

표 2. 청소년활동 유무에 따른 리더십생활기술의 차이

활동영역	구분	M	SD	t
건강·보건활동	참여유	107.07	13.95	-.398
	참여무	108.90	20.11	
과학정보활동	참여유	108.08	12.75	1.463
	참여무	105.17	16.81	
교류활동	참여유	110.95	12.70	2.431*
	참여무	105.83	14.51	
모험개척활동	참여유	107.82	15.55	.900
	참여무	106.10	11.86	
문화예술활동	참여유	107.64	14.14	1.548
	참여무	103.00	14.46	
봉사활동	참여유	107.22	14.65	.160
	참여무	106.86	12.60	
진로탐색 활동	참여유	107.09	14.19	-.173
	참여무	107.50	14.51	
환경보존활동	참여유	107.95	14.06	1.080
	참여무	105.89	14.44	
자기개발활동	참여유	107.97	14.58	1.255
	참여무	105.50	13.41	
참여활동	참여유	111.58	13.06	2.848**
	참여무	105.60	14.31	

\* $p < .05$ , \*\* $p < .01$ , \*\*\* $p < .001$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교류활동과 참여활동에 참여했던 대학생들의 리더십생활기술이 참여하지 않은 대학생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교류활동과 참여활동의 경우 비교적 타 청소년활동에 비해 참여는 높지 않지만 활동했을 경우 리더십생활기술이 높게 나타나 것을 알 수 있다.

## 2. 고교시절 청소년활동 경험이 대학생 리더십생활기술에 미치는 영향

고교시절 청소년활동 경험이 리더십생활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 학년을 통제 한 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3]과 같다.

독립변수들 간의 공차한계가 .478~.917로 모두 0.1보다 높게 나타났고, VIF는 1.099~2.091로 10이하로 나타나 변인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학생 리더십생활기술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의 F값( $F=24.015$ )이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회귀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었다. 전체 모형의 설명력은 34.7%이었다.

표 3. 청소년활동이 리더십생활기술에 미치는 영향

변수	B	S.E	$\beta$	t	p
(상수)	53.161	5.867		9.061	.000
성별	2.718	1.809	.084	1.502	.135
학년	.256	1.074	.013	.238	.812
청소년활동	.094	.041	.130	2.315*	.022
자아존중감	.657	.173	.294	3.791***	.000
행복감	.936	.238	.306	3.937***	.000
$F=24.015^{***}$				$R^2 = .347$	

\* $p < .05$ , \*\* $p < .01$ , \*\*\* $p < .001$

분석결과, 고교시절 청소년활동( $\beta=.130$ ,  $p < .05$ )이 증가할수록 대학생 리더십생활기술이 증가함을 나타냈다. 또한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beta=.294$ ,  $p < .001$ ), 행복감( $\beta=.306$ ,  $p < .001$ )이 높을수록 리더십생활기술이 증가함을 나타냈다.

고교시절의 청소년활동 경험과 대학생 자아존중감, 행복감은 리더십생활기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 3. 고교시절 청소년활동과 대학생 리더십생활기술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고교시절 청소년활동 경험과 대학생 리더십생활기술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의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청소년활동과 리더십생활기술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단계		B	S.E	$\beta$	t	$R^2$	F
1단계 (독립 → 매개)	성별	-2.584	.951	-.179	-2.716**	.057	4.581**
	학년	1.072	.564	.127	1.902		
2단계 (독립 → 종속)	청소년활동	.055	.021	.171	2.606*	.057	4.651**
	성별	-.538	2.126	-.017	-.253		
3단계 (독립, 매 개 → 종속)	학년	1.471	1.273	.078	1.156	.302	24.576***
	청소년활동	.176	.047	.244	3.711***		
자아존중감	1.135	.128	.508	8.902***			

\* $p < .05$ , \*\* $p < .01$ , \*\*\* $p < .001$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방식에 따라 3단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청소년활동 경험이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청소년활동 경험이 종속변인인 리더십생활기술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3단계에서는 청소년활동 경험과 자아존중감을 동시에 투입해 리더십생활기술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표 4]를 보면, 1단계에서 청소년활동 경험은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냈으며( $\beta=.171, p<.05$ ), 설명력은 5.7% 이었다( $F=4.581, p<.01$ ). 2단계에서는 청소년활동 경험이 리더십생활기술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고( $\beta=.176, p<.001$ ), 그 설명력은 5.7%이었다( $F=4.651, p<.01$ ). 3단계에서 청소년활동 경험( $\beta=.160, p<.01$ )과 자아존중감( $\beta=.508, p<.001$ )은 리더십생활기술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30.2%이었다( $F=24.576, p<.001$ ). 청소년활동 경험과 리더십생활기술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3단계 표준화계수( $\beta$ )가 .160으로 유의하긴 하지만 2단계의 표준화계수 .244보다 감소하였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청소년활동 경험과 리더십생활기술간의 관계를 부분매개 한다고 볼 수 있으며,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보기위해 Sobel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Z=2.511, p<0.05$ ).

#### 4. 고교시절 청소년활동 경험과 대학생 리더십생활기술과의 관계에서 행복감의 매개효과

고교시절 청소년활동 경험이 대학생 리더십생활기술과의 관계에서 행복감의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방식에 따라 3단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를 보면, 1단계에서 청소년활동 경험은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냈으며( $\beta=.216, p<.01$ ), 설명력은 6% 이었다( $F=4.871, p<.01$ ). 2단계에서는 청소년활동 경험이 리더십생활기술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고( $\beta=.176, p<.001$ ), 그 설명력은 5.7%이었다( $F=4.651, p<.01$ ). 3단계에서 청소년활동 경험( $\beta=.133, p<.05$ )과 행복감( $\beta=.512, p<.001$ )은 리더십생활기술에 모두 유의

표 5. 청소년활동과 리더십생활기술과의 관계에서 행복감의 매개효과

단계		B	S.E	$\beta$	t	R <sup>2</sup>	F
1단계 (독립 → 매개)	성별	-1.560	.693	-.148	-2.251*	.060	4.871**
	학년	.496	.415	.080	1.196		
	청소년활동	.051	.015	.216	3.292**		
2단계 (독립, 매개 → 종속)	성별	-.538	2.126	-.017	-.253	.057	4.651**
	학년	1.471	1.273	.078	1.156		
	청소년활동	.176	.047	.244	3.711***		
3단계 (독립, 매개 → 종속)	성별	1.911	1.851	.059	1.032	.304	24.913***
	학년	.692	1.100	.036	.629		
	청소년활동	.096	.042	.133	2.300*		
	행복감	1.570	.175	.512	8.991***		

\* $p<.05$ , \*\* $p<.01$ , \*\*\* $p<.001$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30.4% 이었다( $F=24.913, p<.001$ ). 청소년활동 경험과 리더십생활기술간의 관계에서 행복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3단계 표준화계수( $\beta$ )가 .133으로 유의하긴 하지만 2단계의 표준화계수 .244보다 감소하였다. 이는 행복감이 청소년활동 경험과 리더십생활기술간의 관계를 부분매개 한다고 볼 수 있으며,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보기위해 Sobel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Z=3.179, p<.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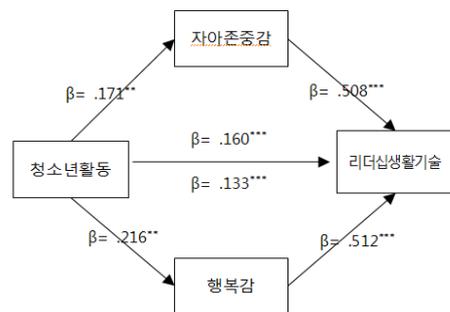


그림 2. 청소년활동 경험과 리더십생활기술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 행복감의 부분매개효과

## IV. 결론

본 연구는 고교시절 청소년활동 경험이 자아존중감

과 행복감을 매개로 대학생의 리더십생활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교시절 청소년활동 경험의 실태를 살펴본 결과 10가지 청소년활동 영역 중에서 건강·보건활동이 95.7%, 문화예술활동이 89.3%, 진로탐색활동이 82.1%, 봉사활동이 79.1%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하여 교류활동 26.1%, 참여활동 26.1%로 가장 낮은 참여율을 나타내었다. 건강·보건활동은 청소년기에 필요한 건강과 보건에 관련된 활동으로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문화예술활동도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의 흥미에 맞는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교시절은 이후 진학 및 취업 등 자신의 진로에 대한 다양한 탐색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시기이므로 이에 대한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진로탐색활동의 참여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봉사활동은 중학교시기부터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의무화되고 있어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타 문화권과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교류활동과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청소년의 권리증진을 위한 참여활동은 비교적 참여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원인을 파악하고 좀 더 청소년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활동 참여 유무에 따른 리더십생활기술의 차이를 살펴보면, 교류활동과 참여활동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리더십생활기술이 참여하지 않은 대학생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박성은(2011)은 청소년 참여활동이 리더십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51], 최창욱 외(2015)은 교류활동, 참여활동 참여 청소년이 비참여 청소년보다 리더십생활기술이 높다고 한 연구들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1]. 즉 교류활동과 참여활동의 경우 비교적 타 청소년활동에 비해 참여는 높지 않지만 참여했을 경우 리더십생활기술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교류활동과 참여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고교시절 청소년활동 경험과 대학생 시기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이 리더십생활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성별, 학년을 통제하고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과거 고교시절 청소년활동 경험은 대학생 시기 리더십생활기술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각각 자아존중감과 행복감도 리더십생활기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고교시절 청소년들이 청소년활동에 보다 많은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경험의 증가는 리더십생활기술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행복감도 리더십생활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어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넷째, 고교시절 청소년활동 경험과 대학생의 리더십생활기술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성별과 학년을 통제하고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고교시절 청소년활동 경험은 대학생의 리더십생활기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을 통해서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교시절에 경험한 청소년활동은 성인기의 리더십생활기술의 강화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을 증진시키고 동시에 이를 통해 리더십생활기술의 강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교시절의 청소년활동의 경험이 성인기의 한 가지 역량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역량에 영향을 미치고 역량 간 상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인기의 역량 강화를 위해 고교시기에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유용한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아존중감, 행복감과 같은 기초가 되는 역량의 강화를 기반으로 성공적인 성인의 삶에 꼭 필요한 리더십생활기술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갈 수 있도록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도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기에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개발하고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 청소년들이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즉 고등학교 시기에도 지식습득 중심의 학습 환경에서

체험 중심 학습 환경으로 변화가 필요하며,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자신에 맞는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선택하고 경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특히 고등학교 시기의 청소년들은 성인기의 필요한 역량 개발을 위해서 청소년활동의 참여가 매우 중요함에도 입시위주의 학습 환경으로 인해 이러한 기회가 매우 제한되며,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그동안의 청소년활동 연구들이 청소년기 역량 개발에 효과적인 점들을 밝히고 있으나 성인기의 역량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활동 경험이 성인기 역량 개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청소년활동의 중요성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성인기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다는 것은 청소년 스스로 청소년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짐을 설명하는 것이며, 이러한 역량은 모든 요소가 서로 밀접한 상호 관계를 유지하며 다 함께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2]. 따라서 청소년시기의 다양한 활동에의 참여는 성인기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될 수 있다. 또한 고교시절 청소년활동을 통해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보다 나은 역량을 보완해 나가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활동이 무엇인지를 규명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역량에 맞춘 청소년활동에의 참여가 권장되는 것이 필요하며, 역량 개발의 효과성이 높으나 참여의 기회가 부족하거나 참여율이 낮은 프로그램을 평가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장차 청소년지도사로 활동하게 될 대학생의 역량 강화를 위해 청소년기 청소년활동 시 자아존중감이나 행복감과 같은 자아역량을 먼저 강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청소년의 개별 역량을 진단하여 필요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청소년활동을 안내하고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둘째, 청소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안병환과 김창현(2006)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활동에 대한 효과는 성별과 학년에 따라 차이를 나타낸다[52]. 이는 청소년활동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차이가 남

녀 또는 학년별로 다르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로써 청소년시기의 각 학년별 발달 특성이 다르며 이에 따라 활동 과정이 달라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즉, 청소년활동의 효과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초·중·고등학교별 발달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46]. 특히 고등학교 시기에 자아존중감, 행복감 및 리더십 생활기술을 증진시킬 수 있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홍보가 매우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지적하면, 우선 본 연구는 청소년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제 변수로 학년과 성별 만을 사용하여 다양한 인구사회학적인 변수들을 살펴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역량과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있어서도 다양한 변수를 살펴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 대상 선정에 있어 청소년지도사를 준비하는 청소년 관련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점과 한 전문대학교에서만 자료를 수집하였으므로 고교시절의 청소년활동의 영향을 대학생 전체에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대학생의 고교시절 과거 청소년 활동경험을 측정하여 그것이 현재의 리더십 역량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회상적(retrospective) 측정방식을 취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청소년활동 경험과 성인기의 역량 개발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다양한 전공과 대학을 포함하는 설문조사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역량 관련 변인을 연구 모델에 포함하여 그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종단 연구를 통하여 고교시절 청소년활동으로 강화된 역량이 대학생 시기에 지속되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청소년활동의 목적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 청소년기 이후 성인의 삶에 청소년활동 경험이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입시로 인한 지식 습득 위주의 학습 환경에서 벗어나 좀 더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과 발달을 도울 수 있는 청소년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또한 청소년활동이 미치는 영향에 관해 구체적으로 청소년 시기 및 성인기에

필요로 하는 역량 개발의 관점에서 설명함으로써 청소년활동의 필요성과 가치를 입증하고자 하였다. 특히 향후 청소년들을 지도할 예비 청소년지도사들의 고교시절의 청소년활동의 중요성을 제시함으로써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와 역량 개발을 위한 청소년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참 고 문 헌

- [1] 최창욱, 문호영, 김진호,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 [2] 권일남, 최창욱, 청소년활동 개념 재정립에 관한 연구:역량개발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 [3] 권일남, 김태균, 최진이, 이상경, 청소년활동론:역량개발중심, 서울:학지사, 2014.
- [4] 김윤나, 정건희, 진은설, 오세비, 청소년활동론, 서울:신경, 2015.
- [5] 여성가족부, 2013 청소년백서, 2013.
- [6] 최미송, 청소년지도사의 역량과 직무환경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7] 서영숙, 남진열, 김상미, “고교시절 사회봉사활동 관련요인이 대학생 자원봉사활동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제4권, 제3호, pp.285-303, 2012.
- [8] 박정배, 김한별, “청소년지도자의 효과적인 리더십 형태의 탐색,” 청소년학연구, 제13권, 제5-2호, pp.103-122, 2006.
- [9] R. A. Heifetz, *Leadership without easy answers*, Seoul:The Nan Publishing Company, 2008.
- [10] 이혜경, “간호대학생의 리더십 생활기술과 자기존중감의 관계,” 정신간호학회지, 제18권, 제3호, pp.278-284, 2009.
- [11] J. A. Linden and C. L. Fertman, *Youth leadership: A guide to understanding leadership development in adolescents*, San Francisco, California: Jossey-Bass Inc, 1998.
- [12] 김정대, 청소년참여를 통한 리더십생활기술 프로그램 개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13] 최창욱, 청소년의 리더십생활기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 [14] J. P. Miller, *Four-H and non-4-H participant's development of competency, coping and contributory life skills*,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1991.
- [15] 성영실, 청소년의 리더십생활기술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16] 박재숙, “대학생의 사회봉사활동이 봉사활동만족도를 통해 리더십생활기술과 복지인식에 미치는 직·간접 영향,” 청소년학연구, 제21권, 제12호, pp.233-260, 2014.
- [17] 박영미, “대학생의 성격유형과 리더십생활기술의 관계,” 사회과학논집, 제48권, 제2호, pp.99-115, 2017.
- [18] 손경옥, 심혜숙, “청소년의 성격유형과 리더십생활기술의 관계,” 한국심리유형학회지, 제13권, pp.65-83, 2006.
- [19] 박희현, “대학생을 위한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의 효과,” 인간발달연구, 제18권, 제2호, pp.1-20, 2011.
- [20] 이보람, 전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경력개발역량과 경력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글로벌인적자원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21] 장세종, 청소년리더십 생활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세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22] 최창욱, 김정주, 송병국, “청소년 동아리활동이 리더십생활기술에 미치는 영향,” 미래청소년학회지, 제2권, 제2호, pp.57-76, 2005.
- [23] 최창욱, 신운호, “중등학생 청소년의 리더십생활기술과 청소년활동 경험과의 관계 분석,” 실과교육연구, 제18권, 제3호, pp.171-194, 2012.
- [24] 박성복, 김규희, “고등학생의 자원봉사활동과 자

- 아존중감,” 복지행정논총, 제18권, 제2호, pp.91-113, 2008.
- [25] 문성호, 문호영,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실태 및 효과에 관한 비교분석,” 청소년복지연구, 제11권, 제1호, pp.101-120, 2009.
- [26] 이성은, “청소년 자원봉사활동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관한 중단적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40권, 제2호, pp.313-335, 2009.
- [27] 류시영, 강방훈, “청소년의 체험활동 만족과 자아존중감, 행복감 간의 관계: 아시아태평양애프터리 참가자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4호, pp.27-50, 2012.
- [28] 송진영, 최영란, “고등학생의 청소년활동참여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공동체 의식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제22권, 제5호, pp.179-209, 2016.
- [29] 김미영, “청소년의 리더십생활기술과 개인특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대한공업교육학회지, 제34권, 제2호, pp.304-320, 2010.
- [30] 박재영, 김희화, “아동과 청소년의 리더십 생활기술에 대한 개인적 변인 및 사회적 지지의 영향,” 인지발달중재학회지, 제5권, 제3호, pp.1-16, 2014.
- [31] 이미린, “간호대학생의 리더십생활기술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Journal of Digital Coverage, 제14권, 제1호, pp.65-73, 2016.
- [32] J. P. Miller and B. E. Bowen, “Competency, Coping, and Contributory Life Skills Development of Early Adolescents,” The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Vol.31, No.1, pp.68-76, 1993.
- [33] C. D. Ryff, “Experience and well-being: Explorations on domains of life and how they matter,”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 Development, Vol.20, pp.193-206, 1997.
- [34] 김윤나, 박옥식, “청소년활동의 효과에 관한 비교분석,” 청소년복지연구, 제11권, 제1호, pp.79-99, 2009.
- [35] 도중수,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제13권, 제4호, pp.21-45, 2011.
- [36] 이미리, “청소년기 행복감 수준의 일상 맥락변화에 따른 다양성,” 한국심리학회지:발달, 제16권, 제4호, pp.193-209, 2003.
- [37] 정준교, “청소년의 자원봉사와 아르바이트의 관계에 관한 연구: 여가생활 만족도, 삶의 생활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제2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pp.517-541, 2005.
- [38] 진은설, “청소년활동의 참여동기, 활동만족도, 적응유연성 및 행복감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1호, pp.185-217, 2013.
- [39] 함승우, “청소년수련활동 참가만족과 자아존중감이 적응유연성 및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저널, 제30권, 제12호, pp.95-108, 2016.
- [40] 한정혁, 홍준희, 이현영,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 정도에 따른 신체적 자기개념 및 행복요인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제49권, 제6호, pp.161-171, 2010.
- [41] 박민서, 저소득층 청소년의 리더십생활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42] 최창욱, 문호영, 김정주,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I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
- [43] 여성가족부, 2014 청소년백서, 2014a
- [44] 권일남, 정철상, 김진호, 김영철, 청소년활동지도론, 서울:학지사, 2008.
- [45] ACA, Youth Development Outcomes of the Experience. American Camping Associations Inc, 2004.
- [46] 장수한, 청소년활동, 양서원, 2014.
- [47] 김정민, 송수지, “청소년활동 만족도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7권, 제20호, pp.359-373, 2017.
- [48] 임희진, 송병국,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 [49] 한국방정환재단,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한국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의 구축과 국제비교연구조사 결과보고서, 한국방정환재단, 2010.
- [50] 송지준, 논문작성에 필요한 SPSS/AMOS 통계 분석방법<제2판>, 21세기사, 2012.
- [51] 박성은, 청소년 참여활동이 리더십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52] 안병환, 김창현, “청소년수련활동의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논단, 제5권, 제2호, pp.41-60, 2006.

### 저 자 소 개

#### 이 시 연(Si-youn Lee)

정회원



- 1995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가정학사)
  - 2000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15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박사수료(아동·청소년복지전공)
  - 2016년 3월 ~ 2018년 2월 : 유한대학교 보건복지과 산학협력교수
- <관심분야> : 아동·청소년복지

#### 강 현 아(Hyunah Kang)

정회원



- 1999년 :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사회복지학 석사)
  - 2004년 :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사회복지학 박사)
  - 2005년 3월 ~ 현재 :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아동·청소년 복지정책, 가정외보호서비스, 아동빈곤